FX

FOMC와 BOJ 회의,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까?

Economist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Economist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 소폭 상승, 그러나 엔화 강세가 상승폭을 제한
- 美 금리인하 및 日 금리인상 가시화되면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다만 최근 환율은 미 금리인하 여부보다 경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 소폭 상승, 그러나 엔화 강세가 상승폭을 제한

지난 주 달러인덱스는 전주대비 소폭 상승하며 104pt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나타나며 위험회피 심리가 상존했다. 다만 2분기 미국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여 침체 우려를 완화했으며, 이는 환율 상단을 어느정도 지지해주었다.

대외적으로 엔화의 강세 또한 달러 강세폭을 일부 제한했다. 이번 주 예정된 BOJ 금정위에서 금리인상 및 국채 매입규모 축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유입된 가운데, 일본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며 나타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이 엔화 강세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

美 금리인하 및 日 금리인상 가시화되면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한편 달러원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에 더해 한국 2분기 GDP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계속해서 1,38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주는 미국 FOMC 회의와 일본 BOJ 금정위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및 일본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환율은 미 금리인하 여부보다 경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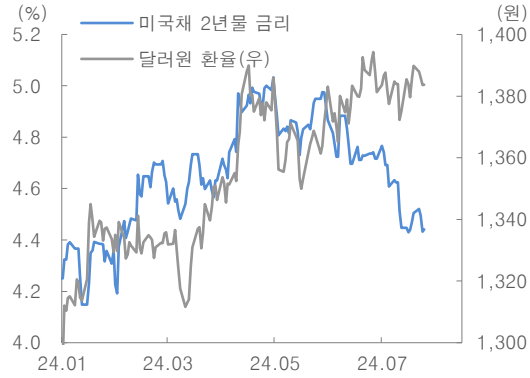
다만, 최근 환율 움직임은 미 금리인하 여부보다 경기나 투자심리에 더 영향받는 모습이다. 미국 기업의 마진 축소 우려가 여러 섹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S&P PMI에서도 비용 상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은 더딘 모습을 확인했다. 물론 2분기 GDP 결과가 시사하듯 미국 경기는 골디락스 국면에 위치했으며, 하반기 완만한 속도조절을 예상한다. 그러나 기업 마진 악화를 지켜보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경기침체 우려는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당분간 달러원 환율은 하락 및 상승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림 1. 달러엔 환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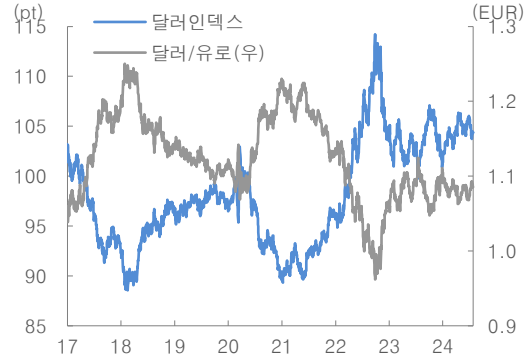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최근 미 금리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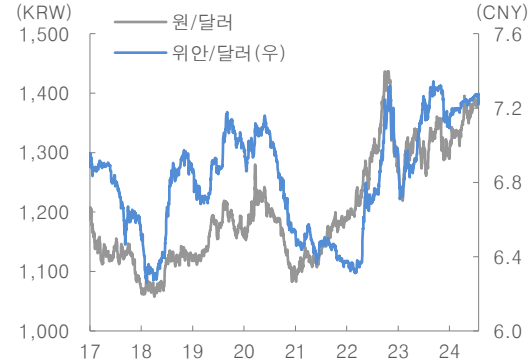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달러 인덱스와 유로/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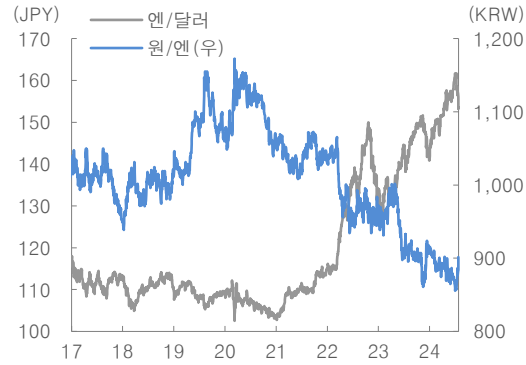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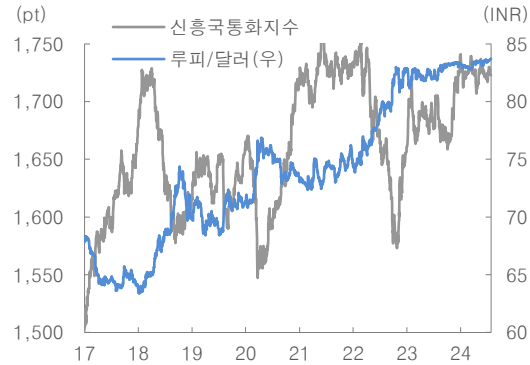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엔/달러 환율과 엔/원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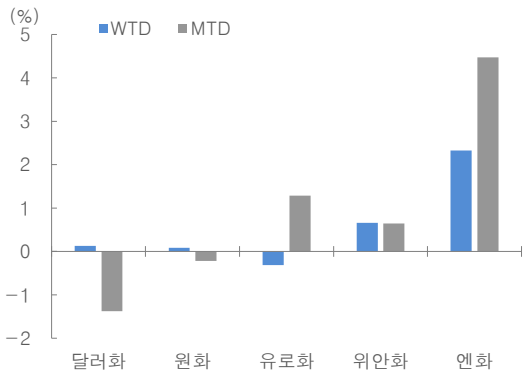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신흥국 통화지수와 루피/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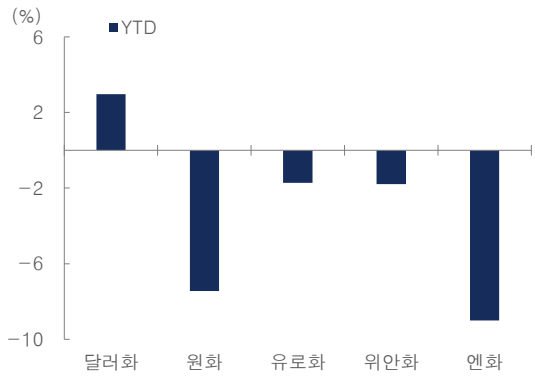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주요국 통화 WTD, MTD 성과 비교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4.07.25 종가 기준

그림 8. 주요국 통화 YTD 성과 비교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4.07.25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주원, 이하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